

# 진흙 범벅 가구·살림살이…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요

광주시 북구 문화동 수해 복구 현장 자원봉사 참여해보니

30도 웃도는 날씨에 금세 땀 범벅...20분만에 5t 트럭 폐기물 가득  
피해주민들 전기 끊기고 가전제품도 쓸 수 없어 마을회관서 숙식  
5년만에 또 침수 피해 주민들 “이제 놀랍지도 않고 그저 착잡” 한숨

폭우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21일 광주시 북구 문화동 주택가 일대. 불과 나을 전만 해도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였을 이곳 주택들은 수마에 휩쓸린 뒤 온갖 세간살이가 물에 폭 젖은 채 뒤엉켜 처참한 모습이었다.

광주일보 취재팀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제31보병사단 장병 35명과 함께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돌며 진흙이 범벅된 가구와 세간살이 등을 빼냈다. 주택 문 앞에 군 장병들과 줄줄이 서서 못 쓰게 된 밥솥, 냉장고, 장판, 철근 등을 연탄 배달하듯 하나씩 날라 폐기물 더미에 쌓아올렸다.

이날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오전부터 30도를 웃도는 날씨로 복구 활동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땀으로 범벅이 됐다. 사우나 같은 무더위에 빗물에 젖은 폐기를 더미에서 하수구 냄새와 같은 악취가 심하게 나다 보니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집 어드는 가구, 집기마다 흙탕물이 떨어져 옷과 장갑은 금세 시커멓게 젖었다.

폐기물 이불, 매트리스, 선풍기, 자전거, 컴퓨터, 장판, 책꽂이, 옷걸이, 가방, 컴퓨터 등 집 안 살림이 몽땅 나와 집 한 채가 통째로 나오는 듯했다. 집 안에는 깨진 유리조각, 부엌 과도, 나무 조각, 전선 등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어 봉사자들이 다칠 뻔한 위험한 순간들도 마주했다.

집기들을 꺼낸 뒤에도 일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 집주인과 집기들을 하나하나 뒤지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과 버릴 폐기물을 분류한 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남았다. 물건들을 분류하는 피해 주민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엮여있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사람 키를 넘어설 만큼 높은 폐기물 더미가 4곳 쌓일 정도였다. 폐기물을 5t 트럭에 하나씩 실어 나르다 보니 20분만에 한 트럭이 가득 찰 정도였다.

피해 주민들은 하나하나 폐기물 더미에 쌓이는 집기들을 쓸쓸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5년 전에도 침수를 겪었던 주민들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그저 착잡하다”고 말 끝을 흐렸다.

400여㎡ 주택에서 오랜 시간 써 왔던 살림들이

마당과 대문 밖으로 나와있었다. 물 한 모금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냉장고도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은 인근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가족들은 수돗물로 온갖 살림살이들을 씻어내느라 하루를 꼬박 보내고 있었다.

수해를 입은 주민 주모(82)씨는 “우리 가족들만 청소했으면 1년이 걸렸을 텐데 군인들이 와서 해주니 속도가 빠르다”며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해서 손 대기도 답답했는데, 지원 나와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놓인다”고 말했다.

아내, 아들, 딸과 함께 사는 주씨는 지난 17일 집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빗물이 목까지 차오를 듯 하자 바로 앞에 있는 빌라 계단으로 피신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긴 집을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빗물받이가 있었음에도 마당에서 소용돌이쳤고, 120cm 물 가림막도 소용없이 넘쳐버려서 물만 겨우 피했다. 빗물이 들어차 젖은 벽지는 다 뜯어지고, 선풍기 5대로 방 안 곳곳을 말려보지만 역부족이었다.

주씨는 “이 지대가 원래 낮아서 문흥고가 등에서 물이 다 흘러나와 순식간에 모이는데 자연배수가 잘 되지 않아 인근 골다리쪽 배수시설 기계로 뽑아내도 넘친다”며 “또 비가 언제 퍼부을지 몰라 걱정된다. 고속도로 주변 물 저수장 만드는 사업이라도 해 줘야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9년 목조 주택을 지어 이사는 추연복(54)씨는 이사 직후인 2020년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가, 올해도 재차 피해를 입었다.

빗물이 무릎 정도까지 차올랐던 탓에 추씨는 올해도 집안의 장판과 단열재를 다 뜯어낼 수밖에 없었다.

추씨는 “장동동, 2순환도로, 문흥지구, 대주아파트 쪽에서 물이 전부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번엔 폭우가 쏟아져 물이 빠지는데만 3~4시간이 걸렸다”며 “피해 입을 때마다 집 수리할 염두가 안 나는데 일시적으로 지원금만 준다면 근본적인 해결 대책도, 충분한 지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21일 광주시 북구 문화동의 한 주택에서 광주일보 양재희 기자와 임예슬, 정예지 인턴기자가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임기철 지스트 총장 공익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 석좌교수 임용 등 채용비리 수사도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총장이 공익제보자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지난해 8월 지스트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고도 명예훼손 사건만 마무리짓고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월 10일 임 총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총장은 지난해 6월 17일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교수 워크숍 회의에서 같은 학교

에서 근무하는 A 교수에 대해 “학교에 피해를 입힌 행위를 했다”며 “교구라지(교수+미꾸라지)가 학교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총장은 또 같은 해 9월 2일 보직자 회의에서 “A 교수가 학교의 물을 흐리고 있고 나는 그가 미꾸라지라고 단호하게 확인한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지난 2023년 “총장 등이 특혜를 줘가며 김병중 전 EBS 사장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각각 아카데미 원장과 명예초빙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받아 임

총장과 김기선 전 지스트 총장, 전 보직교수 등 8명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던 강 전 시장을 석좌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전 시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부적절’ 판정을 받았으나, 김 전 총장 등은 규정을 무시하고 재심을 열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화 등으로 압박을 가해 명예석좌교수로 임용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통신부는 감사를 거쳐 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지스트에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국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투자금 미끼 15억원 챙긴 전 광산구의원 징역 4년형

전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주겠다”며 전 광주시 동구청장 후보를 속여 특별당비, 투자금 등 명목으로 15억여원을 뜯었다가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광주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전 광주시 동구청장 후보인 B씨로부터 특별당

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별당비를 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특별당비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자, “당비를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9억원을 추가로 주변 충남 마스크생산공장에 투자해 20억원으로 돌려주겠다”며 투자금과 소개비 등 12억 8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현재 국민의힘 당원인 것으로 확

인됐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무소속으로 광산구의원으로 당선돼 3선을 지냈으며, 이후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꿔 4선에 당선된 바 있다. 치과의사인 B씨는 2007년 대한민국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시의원을 지내고 2022년 광주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며 기일을 연기하고 조사를 거부하다 일방적으로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점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특별당비 관련 사기 범행은 B씨도 정치 활동을 해 본 경력이 있는 만큼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공천 명목 5억원 건넨 배운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기소

영암군수 후보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선거 브로커’에게 5억원 자금을 건넨 배운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배 전 지사와 그의 가족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 브로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 전 지사 등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후보자 지위 보장, 공천 등을 대가로 A씨에게 5억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역 신문 기자이자 국회의원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전남·전북 지역 구 국회의원 2명에게 전달하겠다고 배 전 지사로부

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공 장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